

송계 신계성의 도학 전승과 남명 조식에의 영향

김 낙 진*

- I. 머리말
- II. 『소학』과 명교
- III. 고학과 간의 의미
- IV. 심법의 계승
- V. 조식에의 영향과 심법의 발전

국문초록

조식의 학문연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 그 중 자득설이 강하게 제시되었었는데, 본고는 지우인 신계성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김굉필, 정붕, 박영으로 이어진 연원 있는 학문을 이어받은 위에 앉은 자리가 뚫어질 정도로 40년 동안 스스로 노력한 사람이 신계성이었다. 그에 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기에 사승관계를 고려하면서 그의 사상을 추정해야 한다. 그는 『소학』 중시의 학풍을 이어 받아 인륜세계를 구축하는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그 흔적이 「행장」에 상징적으로 드러나지만, 박영의 顧確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또 인륜의 가르침과 심학을 연결시키는 모습은 좌우명들로 표출된 『周易』

*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 njkim@cue.ac.kr

艮卦에 대한 주목과 敬義 공부에 대한 집념에 나타난다. 그의 의리정신과 심법은 조식과 상통하는 것으로, 조식에 대한 박영 학단의 영향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그러나 그 심법은 과도기적 현상으로 조선 유학이 심화되면서 극복되어야 할 것이었다.

◆ 주제어 _____

신계성, 조식, 박영, 심법, 도학

I. 머리말

南冥 曹植(1501~1572, 자는 槿中)의 학문 형성에 기여한 師友에 대한 여러 추측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이환은 문과 급제자였던 부친·숙부가 있어 家學에 의해 함양되었으므로 바깥에서 스승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반면 來庵 鄭仁弘(1535~1623)은 “한쪽으로 치우친 荒服의 땅에 뒤늦은 시기에 道學이 唱明되지 않았으나 선생이 우뚝하니 떨치고 일어나 스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스스로 수립할 수 있었다”고 하여 자득을 강조한 바 있었다.¹⁾ 다만 문과급제자가 학자는 아니므로 道學 내지 心學과 같은 깊이 있는 학문을 연마하는 데는 제한적인 도움만 주었을 것이라는 점과 스승 없는 공부는 효율성이 없을뿐더러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점에서 조식의 성취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그에게는 益友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桐溪 鄭蘊(1569~1641)에 의하면 道義交를 맺은 松溪 申季誠(1499~1562, 자는 子誠)·黃江 李希顔(1504~1559)과 조식을 당시 사람들이 嶺中三高라고 칭송했고,²⁾ 洛川 裴紳(1520~1573)은 이들에 더해 三足堂 金大有(1479~1551)도 있었음을 증언하였다.³⁾ 이 중 신계성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식은 신계성의 죽음을 애도하며 墓表를 지었다. 본래 장식하는 언어의 사용을 자제하면서 사실을 정확하

-
- 1) 오이환, 「남명 조식의 사상과 남명학파의 좌절」, 『남명학의 새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59쪽 및 「남명의 생애에 관한 약간의 문제」, 같은 책. ‘사승관계’ 부분을 참고. 정인홍의 주장은 <남명>行狀>, 『南冥集』, 한국문집총간, 1989, 459상a. “嗚呼! 偏荒晚世, 道學未唱, 而先生傑然奮起, 不由師傅, 能自樹立, 迥發獨往, 蓋亦民鮮能久矣, 此非阿所好之言也.”
 - 2) 鄭蘊, <陶村曹公墓碣銘 并序>, 『桐溪續集』, 한국문집총간, 1991, 329하a. “松溪與南冥曹先生植·黃江李先生希顔, 爲道義交, 世謂嶺中三高.”
 - 3) 裴紳, <行錄>, 『松溪實紀』(이하 『실기』)상, 경북대퇴계연구소, 1990, 232쪽. “與黃江南冥三足堂爲友, 相往復焉. 嘗曰南冥有雪月底氣像, 黃江有設施底手段, 三足有軒豁不拘底氣像, 皆我之益友也.”

고도 간략하게 쓰는 것을 좋아한 이가 그이기는 하였지만, 이 글은 망우에 관한 정보를 충실하게 기록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지우를 잃은 비통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정신 상태가 요란한 수사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장이다. 대신 銘에 평가를 압축해 놓았다.

우리 무리에 사람이 있는데, 申君이 가장 뛰어났다. 마음은 엄숙하고 장중하였으며, 행실은 깨끗하였다. 여러 선생을 사숙하였고, 松堂의 문하에 들어갔다. 벼슬하지 않았으나, 남긴 향기 널리 퍼지리.⁴⁾

가장 뛰어났던 그를 조식은 “子誠은 나의 畏友다”⁵⁾라고도 하였는데, 스승이 없던 조식에 비해 寒暄堂 金宏弼(1454~1504), 新堂 鄭鵬(1467~1512), 松堂 朴英(1471~1540)으로 이어지는 ‘淵源 있는 학문’을 한 사람이 신계성이었다. 신학문으로 자리 잡던 도학은 마음을 상세히 분석하고 다스리는 心法을 포함했는데, 경험이 쌓임으로써 상식이 된 전통이 아직은 없었기에 독학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전통이 형성된 후에도 처음 조우한 사제가 爲學의 방법 내지 次第를 묻고 답한 사례들이 많았음을 보면, 그것은 스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신계성은 스승의 전수를 받은 위에 자기 노력을 더하였다. 錦溪 黃俊良(1517~1563)이 退溪 李滉(1501~1570)에게 “凝川(밀양)에 처사 신계성이 있는데, 앉은 자리가 뚫어질 정도로 40여 년 동안 학문을 닦아自得한 공부가 많습니다. 건중이 일찍이 스승이라 칭했다고 하니, 조만간 한 번 찾아가 그 사람됨을 보고자 합니다”⁶⁾고 편지한 것에서 공부의

4) 曹植, <處士申君墓表>, 『南冥集』, 512하b. “銘曰, 吾黨有人, 申君爲最. 齋莊於內, 水蘂其外. 私淑諸人, 松堂之門. 雖家食吉, 遺香則聞.”

5) 鄭仁弘, <閭表碑重建跋文>, 『실기보유』(이하 『보유』)하, 350쪽. “先生隱君子, 南冥曹先生之友也. 曹先生嘗自言, 子誠吾之畏友, 持身制行, 動以繩墨, 有古人風. 家庭之內, 儼若朝廷, 其敬重之實, 此可見矣.”(『來庵集』 권13에도 수록.)

6) 黃俊良, <答退溪先生書>, 『錦溪集』, 한국문집총간, 1989, 157상a. “凝川有申處士季誠, 穿牀四十餘年, 多有自得之功, 建中嘗稱爲師, 早晚一叩, 亦欲見其爲人矣.”

정도를 짐작하게 된다. 스승으로 삼았다는 말은 인격의 모범으로 삼았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말 수도 있으나, 실제로 지식을 얻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논자는 생각한다. 명민한 자질을 타고난 조식이 독학으로 성취한 것이 많았다고 하여도, 축적된 경험을 전수받은 친구가 있었다면 도움이 컸을 것임은 물론이다.

신계성의 사상에 관한 연구물이 몇 편 되지 않는 것은 자료의 부족에 주원인이 있다. 그에 관한 글들을 모아 놓은 책이 『松溪先生實紀』(이하 『실기』)다. 1815(순조15)년 후손 三洲 申顯仁(1762~1832)의 주도로 정리되어 간행하였다. 자료를 보충한 補遺(『松溪先生實紀補遺篇』, 이하 『보유』)가 만들어진 것은 1990년인데, 동시에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에 의해 번역본도 나왔다. 실기류는 본인의 글보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나 후인들의 평가를 모아 구성하는 것이 관례다. 신계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본인의 글은 6편에 불과하다. 비교적 일차 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정인홍 혹은 璞齋 金紐(1527~?)가 썼다는 「行狀」과 배신이 쓴 「行錄」, 집안에서 작성된 「遺事」와 「敍述」인데, 대부분 정보가 빈약한 단문으로 『실기』상에 수록되었다.

『실기』하에는 김유가 작성했다는 「師友錄」, 서원 제향과 贈爵延諡를 요청하는 상소문, 제문, 藥峯 金克一(1522~1585)이 지은 閭表碑銘, 旅軒 張顯光(1554~1637)과 近庵 尹汲(1697~1770)의 여표비 발문, 조식이 지은 「墓碣銘」과 濫溪 林希茂(1527~1577)의 贈詩가 실려 있다. 말미에는 立齋 鄭宗魯(1738~1816), 性潭 宋煥箕(1728~1807), 龜窩 金堉(1739~1816), 俛庵 李堉(1739~1810)의 『실기』 발문이 붙어 있다. 『보유』상에는 五休堂 安珮(1569~1648)의 「密州五賢行蹟」에 기술된 신계성 관련 부분을 옮겨놓았다.⁷⁾ 작자 미상의 「서술」이 함께 실렸는데, 『실기』상의 「서술」보다 자세하다. 『보유』하에는 「道統相承次第圖」와 「문인록」이 있다. 또 예림서원·신산서원 및 여표비 관련 官文 여러 통, 『실

7) 선조로부터 인조에 이르는 시대에 활동한 장현광의 문인 安珮의 원고는 1922년에야 『五休堂先生文集』의 이름으로 출간되었기에, 관련 자료가 늦게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李申·卞季良·金宗直·朴漢柱와 신계성을 밀양 오현으로 존중한다.

기』출간 때는 제외했던 정인홍의 「閭表碑重建跋文」을 수록했다.⁸⁾ 조식이 신계성에게 보낸 편지 5통—『남명집』에 수록된—도 뒤늦게 채록했다. 이외의 자료도 함께 신고 있어 관련 문헌들이 망라되었다.

이 자료들의 가치는 한결같지는 않기에, 그의 진면목을 알고자 한다면 자료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신계성이 누구인가와 후인들이 어떻게 평가했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사망한 뒤에 작성된 글들을 모아 놓은 『실기』하와 『보유』처럼 세대를 거듭하면서 첨가되는 글들은 있던 사실을 서술하기보다는 후인들이 보고 싶어 한 고인의 상을 그린 것들이 많고, 爲先을 통해 家格을 높이고자 하는 후손들이 사실을 왜곡한 사례도 있다.⁹⁾ 본인이 직접 쓴 글과 언행을 목도한 사람들의 글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실기』상에 실린 6편의 저술과 「행장」과 「행록」이 남는데, 「행장」도 언행의 단편들을 모아 놓은 행록에 가깝다.

신계성의 연구는 편린으로 남은 말과 행동을 모아 재구성하는 퍼즐 맞추기와 같다. 이런 작업에는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고전에 출처를 둔, 상징성이 풍부한 추상 언어로 대상을 묘사한 글은 아름답더라도 실제 모습을 가린다. 이를 극복하려면 이 언어들을 공유하였던 사람들이 남긴, 설명이 풍부한 용례들을 활용하고 단어 사용의 방식을 숙고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구체적인 삶이 언어로 추상되었다가 다시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면목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 신계성을 이해하여 보고자 하는 본고도 이런 위험성을 지닌 여러 시도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8) 편집자는 “이는 정인홍이 쓴 것인데 처음부터 돌에 새기지 않았고, 張旅軒 선생에게 글을 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두 가지 의거할 만한 문자가 있으므로 수록하여 觀考에 대비한다”고 설명하였다.(『보유』하, 350쪽, “此卽鄭仁弘所著, 而初不入石, 更受文於張旅軒先生而用之. 然有一二可據文字, 故錄之以備觀考焉.”) 신호인은 본래 이 글을 『실기』에 신고자 하였으나, 문중의 반발로 삭제되었다가, 『보유』에 포함되었다. 김운수, 「송계실기 해제」(『남명학연구』7,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7)를 참고.

9) 한 가지만 보자. 『실기』하권에 실린 「사우록」의 명단을 보면, 사우로 수궁되지 않는 인물도 있다. 예를 들면 그 중 한 사람인 趙光祖가 사망한 해는 기묘사화가 발생한 1519년이다. 경상도 밀양에 살던 21살의 포의 신계성이 어떻게 그의 사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를 일이다.

신계성에 관한 연구는 김윤수의 『『송계실기』 해제』(1997)에서 시작되었다. 『실기』에 異本들이 있음을 소개하고, 편찬 및 간행의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간행 후에 발생한 여러 논란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신계성의 생애를 약술하고, 『실기』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연구물은 정출현의 「송계 신계성의 시대정신과 그 학술사적 위상」(2017)이다. 『실기』의 편찬과정을 먼저 거론하고, 신계성의 입산동기를 중심으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유했던 정신을 논의하였고, 이황과 조식의 학단 사이에서 세력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축이었다고 사회사적 위상을 추정하였다. 또 김종직 학단의 『소학』 중시 학풍을 이었고, 박영의 『대학』 중시 학풍에 영향을 받았음을 약론하였다.

자료가 부족할 때는 사승관계를 살핍으로써 대상의 정신세계를 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계성이 속한 학통의 흐름을 살펴본 글이 여러 편 있다. 송당학단의 생성과 전개, 소멸을 다룬 이로는 김성우(2009), 장운수(2017a), 황지원(2019)이 있고, 특히 뒤의 양인은 도학정신과 박영의 성리학을 분석하였다. 더해서 장운수(2017b)는 박영과 조식이 영향을 수수하였음을 추측하기도 했다. 신계성의 가문을 연구한 신상필(2009)의 논문과 대표적인 학자들의 가계를 중심으로 밀양 사림의 부침을 논의한 박병련(2019)의 글도 있어 역사·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¹⁰⁾ 얼마 안 되는 자료들을 활용하기에 이 연구들이 신계성의 학문 세계를 대부분 다 분석하였다고 보아도 된다. 다만 몇 가지 설명되지 않은 철학사상 관련 부분이 있고, 사상사적 의미도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 한다.

10) 이들의 논문 목록은 참고문헌으로 대신한다.

II. 『小學』과 名敎

『보유』하에는 「道統相乘次第圖」가 실려 있는데, 박영의 『松堂集』 권3에 부록으로 수록된 동일 제명의 그림에 신계성을 첨가하였다. 鄭夢周, 吉再, 金叔滋, 金宗直, 金宏弼, 鄭鵬, 朴英, 신계성의 순으로 도통이 전해졌음을 이 그림은 주장한다. 바로 뒤에 「문인록」을 배치하였는데, 김유와 省庵 宋惟敬(1536~1592) 두 사람만이 기록되었다. 이 두 문건을 바로 이어서 붙여놓았다는 것은 도통의 전수를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때문인지 『실기』 번역본에 해제를 쓴 문경현은 ‘道統淵源’이라는 이름으로 신계성 뒤에 김유를 이어 놓았다. 그러나 ‘도통’이라는 과중한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도학’을 전수한 사승 계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¹¹⁾

신계성은 정봉과 박영으로 이어지는 이 학단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정봉과 박영에 관한 자료는 태부족하다. 정봉의 작품으로는 「案上圖」 하나만이 전해진다. 이 그림은 敬以直內 義以方外 여덟 글자를 중심에 두고 九思·九容을 균형 있게 배치한 그림이다. 구사·구용의 의미상 일상생활에서의 敬義 공부를 지향한 정봉의 학풍이 드러난다. 박영 역시 자료가 부족하긴 매 한가지인데, 「白鹿洞規解」와 「大學經一章演義」를 통해 학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신계성의

11) 김종직의 손자 김유가 본 도통은 이와 다르다. 金紐, <佔畢齋集後序>(金宗直, 『佔畢齋集』). “吾東方道學宗派, 發源於圃隱鄭先生. 治隱吉先生, 受業於圃隱之門而得其正脉. 曾王父直提學江湖先生, 又學於治隱之門, 接其統緒, 而傳之家庭, 則王父佔畢齋先生學問淵源之粹然一出於正, 爲如何哉? 窃聞, 當時名賢俊士, 出於先生之門者, 不止十數焉. 寒暄·一蠹·梅溪, 皆其所獎發, 而靜菴·晦齋·退溪諸賢, 相繼而起, 上以接洙泗濂洛之統, 下以開億萬年無疆之休, 先生繼往聖開來學之功, 豈不偉歟?” 磬漢 孫起陽에 의하면, 고려로부터 당시까지 급제하여 고관에 오른 밀양인들은 많았지만, 文學을 잘하는 선비들[能文之士]이었을 뿐이다. 문장과 도덕, 경제라는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람이 김종직이다. 이 학풍을 이은 밀양인이 문인 迂拙齋 朴漢柱(1459~1504)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그를 사숙하여 계승한 사람이 신계성이었다.<敍述>, 『실기』상, 238~239쪽; 孫起陽, 「通諭本鄉士林文」, 『磬漢集』.) 이 또한 도통 전수의 계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단편적인 발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먼저 정봉이 김굉필을 통해 전해지는 도학의 전승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지닌 의미를 짚어야 한다. 이들은 『소학』을 학문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림파의 전통을 계승한다. 小學童子로 자처하면서 손에서 『소학』을 놓지 않았던 김굉필은 “학문에 종사해도 천기를 알지 못했으나 [業文猶未識天機], 『소학』의 글 속에서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노라[小學書中悟昨非]. 이로부터 名敎의 즐거움이 저절로 있으니[從此自有名敎樂], 어찌 보잘 것 없는 좋은 옷과 살진 말을 선망하랴?[區區何用羨輕肥]”는 시를 지었다. 김굉필에게 『소학』을 통해 근본을 닦는 학문을 배웠을 정봉은 박영을 처음 만났을 때 공부의 순서를 가르쳐주었다. “옛 사람이 공부한 순서에 별다른 것이 있겠는가? 그대는 먼저 『소학』을 보고 또 『대학』을 읽어서 根基가 굳건해지도록 하고나면 공부가 어긋나지 않을 것일세.” 박영이 대답했다. “제가 불민하지만 감히 佩服하지 않겠습니까?”¹²⁾

신계성의 「행장」은 “어릴 적부터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고 과거 공부는 하지 않았으며, 六經에 침잠하고 『소학』을 실천하기에 힘썼다”고 하였으니, 그가 이 전통에 속했음이 드러난다. 또 신계성의 이런 말을 기록해 두었다. “名敎 가운데 저절로 즐거움이 있으니,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도 배가 부르며,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우며, 음악이 없어도 즐거우니, 성현이 어찌 나를 속였겠는가?”¹³⁾ 위에서 인용한 김굉필의 시에 나타나는, 세속적 욕망을 멀리하고 명교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의식과 겹친다.

성리학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 형이상학을 강화한 신유학이다. 理·氣, 太極·陰陽과 같은 추상 용어를 사용하여 세계를 정밀하게 해석하

12) 朴英, <師友錄>, 『松堂集』, 한국문집총간, 1988, 128하a. “新堂曰, 古人爲學次第, 豈有他耶? 君先看小學, 且讀大學, 使根基有所牢固, 然後爲學庶不差矣. 先生曰, 某雖不敏, 敢不佩服.”

13) 金紐(또는 鄭仁弘), <行狀>, 『실기』상, 226~227쪽. “蓋自少時, 即有志於聖賢之學, 不爲科舉之習, 沈潛乎六經之文, 從事乎小學之書, …嘗曰名敎之中, 自有樂地, 非膏粱而飽, 非文繡而美, 非鍾鼓而樂, 聖賢豈欺我哉?”

고, 마음의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살피는 심성 수양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추상적인 이론을 머리로만 수용하면 삶이 이루어지는 실제 세계와 분리된다.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口耳之學화 되는 흐름에 저항하고, 이론은 본래 일상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일깨운 것이 『소학』 중시의 학풍이다. 일상은 삶의 현장이다. 이는 일상의 욕망과 행위를 있는 그대로 긍정한다는 말이 아니다. 일상생활에 유교의 도를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문명화의 길을 걷고, 도와 생활이 하나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둔다.

그 도의 핵심 내용이 신계성이 즐겁다고 한 명교다. 명교는 人倫의 名分에 대한 가르침이란 말이다. 『소학』은 물론 주자의 「백록동규」도 학문의 목적은 명교 즉 오류의 실현에 있음을 적시한다. 따라서 『소학』을 중시한다는 것은 이 오류의 가르침을 생활화한다는 말이 된다. 이 유교 질서를 부식하여 가정과 향촌을 예측화시키려 한 운동의 결과 『소학』 실천을 家學으로 삼는 가문들이 등장하고, 『소학』에 유교 예법을 더한 家範(家訓)이 형성된다. 신계성도 이에 동의하고 참여하였으니 엄격한 가풍을 세웠다.

집안일은 자제들에게 맡기고 항상 담박하게 지냈다. 그러나 집안 다스림은 엄숙하여 사람들이 함부로 범할 수 없었다. 자제들이 장년이 되었더라도 대청에 올라와 마주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모든 행동을 전부 예절에 맞게 행하도록 가르쳤다. 배울 때는 반드시 『소학』부터 들어가서 涵養의 근본으로 삼았고, 독실하게 실천하는 데 힘썼다. 어린 종들까지도 엄하게 대하지 않음이 없어 누구도 감히 방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개의 아들이고 노비임을 모두 알아차렸다.¹⁴⁾

명분은 지위의 이름에 따르는 직분이다. 성원들은 지위에 따른 이름을 부여받고 그 이름에는 직분이 부여된다. 신계성이 집안에서의 위계를 엄격히 하였음은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가정에서

14) 앞의 <行狀>, 229~230쪽.

명분을 배운 사람은 집밖에 나가면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고 마음을 쓸 수 있다고 믿어졌다. 남들이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고 노비임을 알아차린 것은 가족들 사이에서만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집밖에서도 같은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전란과 화재로 신계성의 글 대부분이 없어졌지만, 유일한 유묵으로 남았던 「遺書」을 통해서도 그가 집안에서부터 명분의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였음을 알게 된다.

아! 늙은 내가 평생토록 너희들의 師範이 될 만한 한 마디 말 한 가지 행동을 한 것은 없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탐욕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고, 또 악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다. 집에 있음에 친척들이 절로 화목하였고, 향당에 처함에 친구들이 싫어하지 않았고, 마음은 화평해 이로써 종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나의 자손 중에 감정과 욕망을 함부로 하고 불의를 많이 행하며 형제가 서로 용납하지 않고 가문이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불효가 막심한 일이요, 조상을 더럽히는 일이니, 삼가고 삼가서 이 뜻을 저버리지 말라.…○문호를 유지하고 기한을 면한 것은 증조부가 덕을 베풀고 선을 쌓은 은택이다. 우리 자손들이 부모 섬김은 효로써 하고 선조를 봉사함은 정성으로 하고자 하면 오직 증조부를 법으로 삼아야 하니 내 후손들에게 바라는 바가 깊고도 깊다.¹⁵⁾

증조부는 평산신씨 밀양 입향조인 申承濬의 아들 申儼(1489~?)이다.¹⁶⁾ 스스로가 이름에 따르는 직분을 실천했던 그는 경제적 기반을 만든 증조부의 은덕을 강조하면서 후손들의 결속을 희망하고 있다. 이미 죽은 조상도 가족 성원으로 참여하면 조상과 후손 사이에 일체감이 형성되고, 성원들은 조상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진다. 변덕이 심하고 사람마다의 차이가 큰 개인의 利害心보다는, 가문의 존재는 도덕 실천을 강제하는 데 훨씬 유용했다. 집안에서 훈련된 명교를 넓은 의미에서의 가문과 이족 집단들의 모임인 향당에서도 실천하게 하는 힘

15) 송계성, <遺書>, 『실기』상, 244~245쪽.

16) 신상필, 「松溪 申季誠 가계의 밀양 정착과 후대의 추승 과정에 대한 일고찰」, 『남명학연구』61, 남명학연구소, 2009, 42~43쪽.

이 된다. 이런 모습이 노출되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불의한 행동을 했더라도 “차라리 관청에서 벌을 받지, 신 선생이 알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교화에 畏服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¹⁷⁾ 이런 마음들이 모여 유교 화가 이루어진다.

Ⅲ. 顧確과 艮의 의미

명교와 관련하여 신계성이 박영에게 배운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있다. 「행장」은 그가 “顧確이라는 두 글자는 내가 마음속에서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고, 또 두 쪽으로 만든 병풍의 한쪽에 “그 등에 그 치면 몸을 보지 못하며, 뜰에 가면서 사람을 보지 못한다[艮其背不獲其身, 行其庭不見人]”고 적어두었다고 전한다. 고확은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용례가 없으므로 한 글자씩 그 의미를 새겨 보아야 한다. 『실기』 변역자 중의 한 사람인 김광순은 ‘顧’자를 ‘돌아본다’로 해석하였고, 『中庸章句』 제13장의 “言顧行, 行顧言”에 연원한 것으로 보았다.¹⁸⁾ 그런데 1620년 愼寅龍은 신계성의 贈爵과 延諡를 청한 상소문에 “先正臣 박영을 따라서 고확의 뜻을 얻어들었습니다”¹⁹⁾고 썼다. 고확은 박영의 가르침이었다.

박영의 「백록동규해」에는 ‘顧’의 용례가 나온다. 이 저술의 대본이 된 것은 『朱子大全』(권74)에 실린 「白鹿洞書院揭示」이다. 이 본 글은 ‘五教之目·爲學之序·修身之要·處事之要·接物之要’의 다섯 부분과 발문으로 구성

17) 앞의 <행장>, 230쪽. “人之不義者, 必曰寧受罪於官, 願勿使申先生知也. 其爲人所畏服, 盖如此.”

18) 김광순, 『국역주해 송계선생실기』, 40쪽, 각주 12번.

19) 愼寅龍, <請追贈爵諡疏>, 『실기』하, 265~266쪽. “故處士申季誠, 乃薦行君子也. 天性孝友, 操履醇正, 早志聖賢之學, 絕意科舉之業, 遂從先正臣朴英, 得聞顧確之義, 劈頭於小學, 而專精乎六經, 以敬爲存心之要, 以誠爲持敬之本.”

되었다. 박영의 저술은 이 글의 구절들을 부연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유들의 문장을 모아놓은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서 심법에 관한 자기 견해를 밝혔다. 이 중 타인을 대하는 요법(接物之要)을 해설하면서 『중용장구』의 제13, 14, 15장을 장 구분 없이 연속 인용한다.

제13장은 “도가 사람에서 멀리 있지 않으니, 사람이 도를 행하면서 사람에게서 멀리 한다면 도라고 할 수 없다”는 말로 시작하여 유교의 도는 일상생활에서 구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도를 행하는 가까운 방법으로 忠恕라는 絜矩의 도를 제시한다. 이 장의 마지막은 “평상의 덕을 행하고 평상의 말을 삼가서, 행실에 부족한 바가 있으면 감히 행실에 힘쓰지 않지 못하며, 말이 넘치면 감히 다하지 못하여, 말은 행실을 돌아보고 행실은 말을 돌아보니, 군자가 어찌 篤實하지 않겠는가?”로 맺어진다. 바로 이 구절에 ‘돌아봄(顧)’이라는 문자가 등장한다. 말은 행실보다 넘치지 않도록, 행실은 말에 어긋나지 않도록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14장은 “군자는 지금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행하고, 그 밖의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로 시작하여 “군자는 일상의 직분을 행하면서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위험한 일을 행하면서 요행을 바란다”는 말로 잇는다. 처한 위치에 따라 지위의 이름[名]이 생기고, 그 이름에는 그 지위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의 양식과 행위 규범이 부여된다. 이를 分[職分]이라고 하니, 명분을 지키는 이가 군자이다. 마지막으로 “활쏘기는 군자의 태도와 유사하니, 正鵠을 못 맞추면 자기 몸에서 돌이켜 찾는다”고 하여 ‘顧’의 뜻을 반복하였다. 제15장은 군자는 가까운 곳, 낮은 곳에서부터 도를 실천하기 시작하여 먼 곳과 높은 곳에 이르러야 함을 논하니, 역시 일상생활에서부터 도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중용장구』 세 장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은 일상생활에 명분질서를 구현해야하고, 명분을 지키는 군자가 되고자 하면서, 자신이 그것에 충실한지를 항상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명분이라는 말이 『소학』과 『중용』을 연결시킨다. 이는 다시 병풍에 써놓았다는 ‘그 등에 그치면 몸을 보지

못하며 뜰에 가면서도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구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구절의 출처는 『周易』 艮卦이다. 그가 이 해석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주역』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의미로 추정해야 한다.

伊川 程頤의 『易傳』에 따르면 艮은 止의 뜻을 지닌다. 山의 형상을 취한 것은 그것의 安重하고 堅實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뜻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는 통상 ‘그친다’ ‘멈춘다’로 번역된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하던 일을 멈춘다, 더 나가지 못하고 멈춘다’는 정도의 뜻이 있으니, 어떤 제약을 받아 한계에 처함을 암시한다. 정이의 해석은 이와 다르다. 장중하게 편안하고 진실성을 가지고 건실하게 그친다는 의미를 부여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마음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다. 정이는 “艮止는 그침을 편안히 한다는 뜻이니, 자기 자리(其所)에 그침이라”²⁰⁾고 하였다.

‘자기 자리에 그침’은 『대학』의 止於至善과 통한다. 그래서 정이는 간괘를 해설하면서 (“『대학』에 인용되었듯이) 공자가 ‘그칠 곳에 그침을 안다’고 하였으니, (그칠 곳이란) ‘마땅히’ 그쳐야 하는 곳을 이른다. 존재자(物)가 있으면 반드시 법칙 있으니, 부모는 자애로움에 그치고, 자식은 효에 그치며, 임금은 어짊에 그치고, 신하는 공경함에 그쳐서, 모든 존재자와 모든 일들이 각기 제 자리가 있으니, 제 자리를 얻으면 편안하고, 제 자리를 잃으면 어그러진다”²¹⁾고 풀이하었다. 그렇다면 제 자리란 단순한 공간적 자리가 아니라 ‘마땅히’라는 말이 가리키듯이 당위성의 자리다. 부·자·군·신에게는 慈·孝·仁·敬이 바로 그 자리인데, 명에 따른 직분인 이것을 『대학』은 ‘至善’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자가 『대학』 해석에 적용한 止의 의미를 참고하는 것은 유익하다. 그는 『대학』 經1章의 止於至善을 해석하면서 “그침은 반드시

20) 程頤, 『易傳』 艮卦. “…艮者, 止也, 不曰止者, 艮, 山之象, 有安重堅實之意, 非止義可盡也, …艮止者, 安止之義, 止其所也.”

21) 程頤, 『易傳』 艮卦. “夫子曰, 於止, 知其所止, 謂當止之所也. 夫有物必有則, 父止於慈, 子止於孝, 君止於仁, 臣止於敬, 萬物庶事莫不各有所止, 得其所則安, 失其所則悖.”

이것에 이르러 옮기지 않는다는 뜻이다”(止者，必至於是不遷之意)고 하였고, 傳3章의 惟民所止를 해석하면서는 “그침은 居함이라”(止，居也)고 하였다. 첫 번째 해석의 ‘이에 이른다’는 말은 그곳이 아닌 곳에 있다가 그곳으로 옮겨간다는 동작성을 표현한다. 그리고 뒤의 ‘옮기지 않는다’는 말은 일단 한 번 그곳에 이른 뒤에는 마음과 행동이 변치 않음을 뜻한다. 전3장의 해석에 나온 居라는 글자에도 지속성 있게 한 곳에 머문다는 뜻이 있으니, 居敬의 居가 용례이다. 따라서 마땅함이란 당위에 머물러 변치 않는다는 뜻이 되겠다.

그런데 신계성의 좌우명은 ‘간기배불획기신’과 ‘행기정불건기인’의 對句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이 의도한 바는 주자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 등에 그쳐 몸을 보지 않음은 ‘멈추어 있으면서’ 그침이요, 뜻을 가면서 그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가면서’ 그침이니, 動과 靜에 걸쳐 각기 제 자리에 그쳐서 모두 靜을 주로 하니 허물이 없을 수 있는 까닭이다.”²²⁾ 여기서 ‘멈추어 있으면서’와 ‘가면서’는 정과 동을 가리킨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은 크게 동과 정 둘로 나눌 수 있으니, 모든 경우 또는 항상 뜻이 된다. 마지막의 靜은 「太極圖說」의 풀이대로 無欲(無欲故靜)을 뜻한다고 보면 모든 경우에 무욕의 자세로 임한다는 말이다.

『주역』 간괘에서 가져온 신계성의 좌우명은 ‘마땅히 머물 곳에 머문다’는 유교적 명분질서를 존중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간괘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도학사상에서는 일반화된 질서관이라고 할 것인데, 굳이 간괘의 문장을 취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조선의 유학자들이 선호했던 정이의 『역전』에 있는 다음 문장에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사람이 그 그칠 곳에 편안하지 못하는 까닭은 욕망에 흔들리기 때문이니, 욕망이 앞에서 끄는데 그치고자 하면 그칠 수 없다. 그러므로 艮의 도는 마땅히 그 등에

22) 朱熹, 『周易本義』 艮卦. “蓋艮其背而不獲其身, 止而止也; 行其庭而不見其人者, 行而止也, 動靜各止其所而皆主夫靜焉, 所以得无咎也.”

서 그쳐야 한다. 보는 것이 앞에 있는데 등은 등지고 있으니, 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치면 욕심이 그 마음을 어지럽힘이 없으니 그침에 편안할 것이다. ‘불확기신’은 그 몸을 보지 못함이니, 나를 잊음[忘我]을 일컫는다. 내가 없으면[无我] 그치게 되나 내가 있으면 그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뜰을 가면서’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것에서 뜰 사이는 지극히 가까운 곳이다. 등에 있으면 지극히 가까워도 보지 못하니 외물과 교섭하지 않음을 일컫는다. 밖으로 사물과 접하지 않고 안으로는 욕망이 싹트지 않아서 이와 같이 그치면 그침의 도를 얻으니 그침에 허물이 없게 된다.²³⁾

망아와 무아라는 도가 및 불교의 용어를 유교적 의미로 읽으면 사적인 자아, 또는 사욕과 私意가 없는 나라는 정도의 뜻으로 읽어야 한다. 보이지 않고(不獲), 보지 못한다(不見)는 것은 오로지 도리(명분)만 보고 死生과 利害, 貴賤과 剛柔와 같은 사사로움에서 비롯되는 가치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닌다.²⁴⁾

확에 대해 신인룡은 박영의 가르침이라고 하였지만, 『송당집』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일반적인 의미로 추측하고자 한다. 확은 確乎其不可拔의 확일 것인데, 김광순도 그렇게 보았다. 정인홍이 조식을 제사지내면서 쓴 제문에 “확고하여 뽑히지 않았으니[確乎不拔], 周易에서 칭찬한 덕입니다[易所稱德]”라고 하였을 때의 확일 것이다.²⁵⁾ 이 말의 출처인 『주역』 乾卦 文言 初九는 ‘潛龍勿用’이라는 말을 설명한다.

初九에서 말하길 ‘潛龍은 쓰지 말라’는 말은 무엇을 이르는가? 공자가 말하였

23) 程頤, 『易傳』. “人之所以不能安其止者, 動於欲也. 欲牽於前而求其止, 不可得也. 故艮之道, 當艮其背. 所見者在前而背乃背之, 是所不見也, 止於所不見, 則无欲以亂其心, 而止乃安. 不獲其身, 不見其身也, 謂忘我也. 无我則止矣, 不能无我, 无可止之道. 行其庭不見其人, 庭除之間, 至近也, 在背則雖至近, 不見, 謂不交於物也. 外物不接, 內欲不萌, 如是而止, 乃得止之道, 於止爲无咎.”

24) 任聖周, <經義 周易 壬戌癸亥>, 『鹿門集』, 한국문집총간, 1999, 299상b~하a. “父止慈子止孝君止仁臣止敬, 只見其理, 而不見其身之有死生利害, 是艮其背不獲其身也. 如此則雖行於庭除有人之地, 與人相接, 而亦只見其理, 不見其人之有貴賤剛柔, 是行其庭不見其人也.”

25) 鄭仁弘, <祭先師南冥曹先生文>, 『來庵集』, 한국문집총간, 1989, 434상b.

다. “龍의 덕을 가지고 은둔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따라 변하지 않고, 명성을 이루려 하지 않아, 세상에서 은둔하되 근심하지 않고, 남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근심하지 않으면서, 즐거우면 행하고 근심스러우면 떠나간다. 그 의지가 확고하여 뺄리지 않는 사람이 잠룡이다.”²⁶⁾

도를 가슴에 품고 덕성을 이룬 사람은 자기중심이 분명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나 이해타산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평소止로 상징되는 당위의 명분질서를 실천하다가 세상이 어려워져서 은둔함으로써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소신을 바꾸지 않는 것이 확호불발에 부여된 의미다.

IV. 心法의 계승

도학의 정신은 성리학자라면 누구나 말했고 말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조선유학사에서 본격적으로 실천된 것은 소학실천파, 즉 도학파가 전면에서 등장하였을 때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어린이용 교과서인 『소학』은 집에서의 효도와 우애를 가르치는 책이기는 하지만, 효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즉 나의 욕심과 편리함, 이익 추구의 마음을 없애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에게 최선으로 헌신하는 마음가짐을 길러야 한다. 『소학』에서 이미 敬身이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가 되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소학』은 심법을 닦는 책이었다.

소학동자 김굉필은 玉溪 潘佑亨(?~?)에게 18조로 구성된 「寒氷戒」라는 심법의 글을 주면서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였다.

『소학』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曾子의 말에 “깊은 연못에 임하듯, 얇은 얼음을 밟듯 하라”고 한 것은 戒愼恐懼의 지극한 것이며 진실로 『소학』을 공부하는 大綱

26) 『周易』 乾卦. “初九曰潛龍勿用, 何謂也? 子曰, 龍德而隱者也. 不易乎世, 不成乎名, 遯世無悶, 不見是而無悶, 樂則行之, 憂則違之, 確乎其不可拔, 潛龍也.”

領이다. 仁義禮智와 孝悌忠信과 思無邪와 無不敬과 敬勝怠와 九思九容과 灑掃應對와 隆師親友의 도는 함께 말미암아야 될 바의 문호이다. 만에 하나 삼가고 두려 위하는 정성이 깊지 않으면 경전을 공부해도 文具가 될 뿐이요 결실 없는 공부일 뿐이다. 나는 『소학』을 공부한 이래로 戰戰兢兢하는 마음을 깊이 가져서 일마다 행하여 보니, 이 마음이 항상 가슴속에 보존되고 四肢에 뻗어나가며 사업상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스스로 믿게 되었다.²⁷⁾

「한빙계」는 19세기에 반우형의 문집이 간행되면서 알려진 것으로 위작의 혐의가 있지만,²⁸⁾ 『소학』과 심법이 연계되는 현상의 한 증거로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학』 공부와 실천에 임하는 자세는 곧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었다. 이 심법이 경 공부로 집약된다. 그것이 정봉에게 전수되어 「안상도」가 되고, 박영에게 전수되어 「백록동규해」와 「大學經一章演義」에 반영된다. 이것이 신계성에게 전해지는 도학 전승의 골수다.

「행장」은 신계성의 인격을 소개하는 말로 시작된다. “자태는 단정하고 깨끗하였으며, 기상은 강직한 지조가 있었고, 장중하면서 엄숙하였으며, 말을 급하게 하거나 황급한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다.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말을 할 때나 조용히 있을 때나 모두 법도로 율신하였다.” 「행장」이 뒤를 이어 학문 활동을 기술함을 보면 그는 공부를 통해 이런 인격을 길렀다. 그에 의하면 신계성은 “存養이 익숙해지면 기상이 높고 커지며, 省察이 오래되면 이 마음은 저절로 誠하고 明해져서 사물이 다가오면 널리 응하고 세세하게 들어맞는다”²⁹⁾고 말하였다.

27) 潘佑亨, <題寒氷戒後>, 『국역 景賢錄』, 한원당선생기념사업회, 2004, 420쪽. “小學不云乎? 曾子曰, 如臨深淵如履薄氷, 戒愼恐懼之極至處, 而實爲小學做工之大綱領矣. 仁義禮智孝悌忠信思無邪無不敬敬勝怠九思九容灑掃應對隆師親友之道, 所共由之門戶也. 萬一愼懼之誠不深, 學經徒爲文具, 而無實工耳. 予自受讀小學以來, 深服戰戰兢兢之心, 隨事做去, 而自恃此心常存諸一胸中, 而暢於四肢, 發於事業上面.”(필자가 김평필에게 이런 글이 있음을 인지하게 된 것은 차장섭, 「신당 정봉의 생애와 정치사상적 역할」(『국학연구』23, 한국국학진흥원, 2013)을 통해서이다.)

28) 이세동, 「玉溪 潘佑亨의 寒氷戒 고찰」, 『영남학』25,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4.

29) 앞의 <행장>, 226~227쪽. “資狀端潔, 氣度耿介, 齋莊嚴毅, 未嘗疾言遽色. 動靜語默, 皆律以規矩. …又曰存養熟則氣像高大, 省督久則此心自然誠闇, 事物之來, 泛應曲當.”

존양은 『맹자』에 연원한 存心養性의 준말이다.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 본성을 기르는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맹자의 말에 주자는 이렇게 해석을 붙였다. “存이란 잡아서 버리지 않음을 일컫고, 養은 순종하여 해치지 않음이다.”³⁰⁾ 존심이 먼저고 양성이 나중이다. 마음을 보존한다는 말은 보존되지 않은 마음이 있음을 전제한다. 맹자는 그것을 放心 즉 놓아버린 마음이라고 부른다. 그 놓아 버린 마음을 잡아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求한다’고 하였다. 마음을 놓으면 昏昧해지기에 마음을 구해야 한다. 이래야 본래 내 마음속에 갖추어진 본성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발현된다. 이 존양 성찰의 방법이 敬誠의 공부이다. 「행장」은 신계성의 공부법과 얻은 효과를 기술한다.

敬으로써 마음을 잡아 보존하는 요법으로 삼았고, 誠으로써 敬을 유지하는 근본으로 삼았다. 참됨이 쌓이고 오래도록 힘쓰니 道는 정밀해지고 仁은 무르익어, 의리의 깊음은 이치와 사물의 크고 작은 것들에 접촉하는 곳마다 흰히 알았고, 결과 속을 꿰뚫었다. 본과 末을 구별하여 말하고, 시비를 가르며, 남과 응대하며 수작함에 티끌만한 선입견이나 욕심을 흉중에 담아두는 일이 없었고, 浩然하여 남이 부릴 수 없는 강직함이 있었다.³¹⁾

程朱에 의하여 心法으로 정착된 경 공부는 마음에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날 때부터 천리와 인욕, 공과 사, 선과 악을 정밀하게 살펴보고는 (精察 또는 省察) 불의, 邪, 私 등으로 불리는 昏昧한 부정적인 양상을 제거하고 의, 正, 公으로 말해지는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공부다. 티끌만한 선입견이나 욕심도 없으며 호연한 강직함을 지녔다는 말이 그 결과를 표현한다.

경 공부와 義의 실천을 결합시키는 것이 정주학이다. 경 공부법에는

30) 『孟子』, <盡心上>.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주자 주 : “存, 謂操而不舍; 養, 謂順而不害.”

31) 앞의 <행장>, 227쪽. “以敬爲存心之要, 以誠爲持敬之本, 眞積力久, 道精仁熟, 義理之蘊奧, 事物之巨細, 觸處洞然, 表裏通徹. 其論說本末, 卞析是非, 應接酬酢, 無纖芥底滯于胷中, 浩然有不可御者矣.”

정자와 謝良佐·尹焞에 의해 제시된 四條法이 있다. 그 중 하나가 主一無適인데,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도둑도 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므로 무조건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의로운 일에 집중해야 한다. 경과 의가 결합하고 그것이 지속성이 있을 때 誠해진다(정성스럽고 진실함)고 말한다.³²⁾ 신계성이 흰 병풍 두 폭을 만들어서, 한쪽에 “敬하여 안을 바르게 하고 義롭게 행동하여 바깥을 반듯하게 한다[敬以直內, 義以方外]”라고 쓴 것은 그가 이런 심법을 수용하였음의 증거다.

이것과 간괘의 문장이 병풍 두 폭을 구성하였음에 주의해야 한다. 새로운 명분의 질서는 새로운 인격 공부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새로운 문명이 정착하면 그에 맞도록 개인들을 바꾸어야 한다. 예컨대 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그에 맞는 생활원리를 일상에 실현하고자 하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아야 한다. 일탈의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의 회생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생활원리를 지키고자 해야 한다. 전통으로부터 자유는 필요조건일 뿐이므로 새 규범의 강제를 수용하여 생활을 바꾸어야 하고, 인격도 바꾸어야 한다. 인격을 바꾸고자 동원한 방법이 敬義 또는 誠敬의 공부였다.

誠과 관련해서 신계성은 맥락이 다른 두 용법을 사용한다. 첫째는 존양이 숙달되고 성찰이 오래되면 ‘이 마음은 저절로 誠하고 明해져서 사물이 다가오면 널리 응하고 세세하게 들어맞는다’는 용법이다. 둘째는 ‘敬으로써 마음을 잡아 보존하는 요법으로 삼았고, 誠으로써 敬을 유지하는 근본으로 삼았다’는 용법이다. 첫째는 공부법에 대비된 결과로서의 성을 말하였다. 경은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공부법이고, 誠과 明은 경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진실하여 한 터럭의 인위도 없는 완성의 상태다. 『중용』의 “誠한 것은 하늘의 도이고, 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도”³³⁾라는 말에서 전반 구는 목표로, 후반 구는 공부로 해석된다.

32) 『近思錄』, “明道先生曰修辭立其誠…”의 葉采 주 “…誠意者, 合敬義之實而爲言也.”

33) 『中庸』 제20장.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이에 비해 둘째의 ‘誠으로써 敬을 유지하는 근본으로 삼았다’는 구절의 의미는 불명료한데, 이것도 박영에게 배운 것이라고 추측된다. 박영은 “도에는 본체와 작용이 있는데, 오로지 誠으로써 주재한다”³⁴⁾고 말한 바 있다. 이 말과 ‘誠으로써 敬을 유지하는 근본으로 삼았다’는 신계성의 말이 유사하다. 이것을 첫째의 경우처럼 결과로서 얻어진 성을 근본으로 삼은 것이라고 보면 과정에 결과를 도입한 절차의 오류를 범한 것이 된다. 그보다는 경 공부와 함께 성 공부(誠之)를 병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의 성 공부는 천리와 인욕을 정밀하게 성찰하는 경 공부는 없지만, 자기기만 없이 진실하고도 정성된 마음으로 행위에 집중하는 방법이다.³⁵⁾ 박영이 결과가 아닌 공부로서의 성도 의식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백록동규해」의 제3장인 ‘修身之要’와 「대학경일장연의」이다.³⁶⁾

아마 박영과 신계성은 정성을 다하고 진실해지려는 마음가짐이 경 공부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본 것 같다. 이 공부를 통해 ‘티끌만한 선입견이나 욕심을 담아두는 일이 없었고, 크고 곧은 기운이 있어 남이 부릴 수 없는’ 인격을 길렀을 것이다. 이와 함께 격물치지의 공부를 하였다. 경과 성 공부를 통해 길러지는 무사념 무사욕의 인격을 바탕에 두고 『소학』과 육경 등을 공부함으로써 유교의 도에 정밀하게 체득한 그는 ‘의리의 깊은 이치와 사물의 크고 작은 것들에 접촉하는 곳마다 훤히 알았고’ 사물의 ‘본과 말을 구별하여 말하고, 시비를 가릴’ 수 있었다.³⁷⁾

34) 朴英, <白鹿洞規解>, 『松堂集』, 92상b. “蓋道有體用, 唯誠主之.”

35) 주자는 程子가 경 공부와 성 공부를 구분한 것에 이런 해석을 붙였다. “경은 깜짝 놀라 갑자기 몸이 솟구치듯이(竦然)하여 마치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한다는 뜻이다. 성은 진실무망하다는 말이다.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성 공부로는 『中庸·大學』의 慎獨과 『論語』의 主忠信을 드는데, 경은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나누는 성찰을 통해 혼란한 마음을 극복하는 과정을 포함한다.(鄭述, 『心經發揮』, 국립중앙도서관DB, 88~89쪽. “(程子)曰誠然後能敬, 未及誠時, 却須敬而後能誠. 朱子曰敬者竦然如有所畏之意, 誠是眞實无妄之名, 意思不同. 誠而後能敬者, 意誠而後心正也. 敬而後能誠者, 意雖未誠, 而能常若有畏, 則當不敢自欺, 而進於誠矣. 此程子之意也.”)

36) 박영의 <大學經一章衍義>에는 편자의 견해를 밝힌 얼마 되지 않은 ‘按’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다음의 글인데, 과정과 결과를 구분하였음을 알려준다. 朴英, <大學經一章衍義>, 『松堂集』, 114상b. “(誠意的)誠, 實也. 此誠字, 非中庸之誠字, 看心之所發善惡.”

그런데 경 공부를 할 때는 四條法[整齊嚴肅·主一無適·常惺惺法·心收斂]이 사용된다. 이 중 어느 것에 着手處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생각이 달랐다. 신계성의 경우는 다음 전언이 눈에 띈다.

30세 이전부터, 잠잘 때 이불을 덮거나 베개를 베지 않았다. 밤에 등불을 켜지 않았고, 갓과 허리띠를 벗거나 풀지 않은 채 나무 책상을 마주하고 단정히 앉아서 깊이 사색하고 말없이 생각하다가, 밤이 깊으면 기대서 잠시 잠을 잤을 따름이다. 40세 이후에 비로소 이부자리를 갖추긴 했으나, 2경이 되어야 잠자리에 들어 담이 울면 바로 일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였다.³⁸⁾

가야산 蘇利庵에 올라가 밤을 새면서 자지 않았다는 김굉필과 성균관 유학 시절 코를 골며 즐기는 하였으되 잠은 자지 않았다는 一蠹 鄭汝昌(1450~1504)의 모습이 떠오른다.³⁹⁾ 이들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이 혼매한 정신을 喚醒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했던 것이니, 四條法 중 상성성법을 선호했다. 박영이 “만약 경으로써 주로 하지 않으면 진실로 下手着力할 곳이 없다. 성찰하면 경은 저절로 생기고, 경하면 마음이 보존된다. 존양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고 경을 유지하며 깨어 있고 깨어 있는 것이 가깝다.”⁴⁰⁾고 말함을 보면 그도 성성법을 중시했다.

이 학풍을 이은 이가 신계성이다. 주자는 “존심양성이 익숙해지면 가서 천리의 유행 아님이 없게 된다”고 하였는데, 신계성은 ‘존양이 익숙해지면 기상이 높고 커지며, 성찰이 오래되면 이 마음은 저절로 誠하고 明해져서 사물이 다가오면 널리 응하고 세세하게 들어맞는다’⁴¹⁾고 바꾸

37) 배신, <행록>, 231쪽. “...以格致誠正爲學問之根本, 以修齊治平爲學問之功用.” 이런 구절은 정철현의 지적대로 박영의 『대학』 중시의 학풍을 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8) 앞의 <행장>, 229쪽.

39) 南孝溫, 『師友名行錄』. “少時居館, 與人寢, 甞睡而不寐, 人不知也. 一宵見獲於崔鎮國, 館中喧傳, 以爲鄭某參禪不寐.”

40) 박영, <白鹿洞規解>, 『송당집』, 92상a. “若不以敬爲主, 固無下手着力處矣. 纔省則敬自然生. 能敬, 便存. 存養之法無他, 持敬惺惺, 近之矣.”

41) 『論語』, <述而>. “子曰志於道, 據於德, 依於仁.”의 주자 주. “存養之熟, 無適而非天理之流行矣.” 앞의 「행장」, 227쪽. “又曰存養熟則氣像高大, 省察久則此心自然誠明, 事

어 놓았다. 스스로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존양 공부 과정에서 상성성법을 사용하여 기상을 높고도 크게 함으로써 기품과 인욕을 제압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⁴²⁾ 신계성이 송유경에게 준 “敬과 省(省察) 두 글자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昏과 昧 두 글자는 일생의 큰 병통이니 힘을 쓰고 더 힘써야 한다”⁴³⁾는 가르침도 성성법을 전제한 것이라고 논자는 이해한다.

V. 조식에의 영향과 심법의 발전

중종 명종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유학은 심화된다. 유교의 명분질서를 겉모습만이 아닌 깊은 마음의 수준에서 동의하고 실천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들은 董仲舒의 “의로움을 바르게 실천하고 이익을 피하지 않으며, 도를 밝히고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다”[正其義, 不謀其利; 明其道, 不計其功.]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사욕이나 사의 없이 순수하게 도와 일치되는, 예법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했다. 이런 학문을 道學이라고 하는데, 그 저변에는 마음을 분석하고 다스리는 심학이 있었다.⁴⁴⁾ 이 시기로부터 심학을 닦아 인격을 기름과 학문함은 동의어가 되

物之來泛應曲當.”

42) 이 역시 박영의 영향이라고 추정된다. 박영은 <大學經一章演義>에서 “按合心與性而言, 謂之明德. 本體所發, 純是善. 意之所發, 有善惡. 明之, 謂澡雪揩磨. 虛靈, 是心. 具衆理, 是體是忠是虛. 應萬事, 是用是恕是靈. 氣稟所拘, 謂智愚賢不肖. 人欲所蔽, 是耳目口鼻. 氣稟所拘, 有分數. 人欲之蔽, 則全遮而昏. 心本體, 性. 之明, 下明字, 所發, 善. 遂明之. 上一明字, 復其初, 兼知行, 凡五言之. 但孟子養氣章, 專指氣而言之, 必至於是, 無過不極(及). 當然之極, 一物一太極; 天理之極, 明德新民.”라고 하여 기품과 인욕을 누르기 위한 방법으로 浩然之氣를 기름에 역점을 두었다.(『松堂集』, 103하b ~ 104상a.)

43) 송계성, <戒宋正郎惟敬>, 『실기』상, 244쪽. “敬省二字, 不可須臾忘, 昏昧二字, 乃終身之大病, 更須力加力加.”

44) 鄭介清, <道學之要>, 『愚得錄』, 한국문집총간, 1989, 347상b. “丹書曰敬勝怠義勝欲, 孔子曰敬以直內義以方外, 商書曰以義制事, 以禮制心, 孔子曰義以爲質, 禮以行之, 愚謂千聖相傳道學之要, 不過敬義禮而已.”

었다. 신계성은 이 흐름에 속해 있었고, 그가 남긴 말들은 대부분 도학과 관계된다.

박영에게 배운 신계성의 학문은 조식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보인다. 신계성이 항상 잊지 않았다는 顧確과 敬義 공부는 일상성의 정신이 반영된 것인데, 형이상학화 되던 학풍을 비판하고 灑掃應對進退之節의 우선성을 역설한 조식의 발언에 담긴 것이 일상성의 정신이다. 명리에 구속됨을 싫어하여 자유정신을 추구하면서 확호불발하는 기상을 가다듬은 조식의 정신이 잘 드러난 글이 「嚴光論」이다. 「행장」의 작가는 신계성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았다. “조정에서 누차 덕행이 있다고 徵召하였으나 병을 핑계하고 일어나지 않고서, 드디어 백의의 선비로 종신하였다. 아아! 선생은 篤信하는 군자이니, 또한 그 뜻을 高尚하게 하면서 王侯를 섬기지 않은 사람이다.”⁴⁵⁾

벼슬을 버린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명분에 맞는 인격을 기르고자 심법을 공부하고 실천한다. 그 방법이 조식의 패검명과 신계성의 屏銘으로 표출된 敬義 공부이다. 대접에 물을 담아 들고 밤을 새우고 惺惺子를 패용하고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進步廝殺(「神明舍圖銘」)의 태도를 중시한 조식의 공부법⁴⁶⁾은 깊은 잠을 자지 않은 신계성의 방법과 유사하다. 勇猛精進했을 이들의 공부법은 常惺惺法の 변용이다. 성 공부에 대한 생각도 공유했다. 조식은 「좌우명」에서 “언행을 신의 있게 하고 삼가며[庸信庸謹], 사악함을 막고 진실함을 보존하라[閑邪存誠]”고 하였는데, 용신용근은 박영이 주목한 『중용』의 庸德之行과 庸言之謹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조식의 학문에는 신계성을 통해 전해진 박영 학단의 영향이 짙다는 가정이 성립되는데 앞으로 더 따져보아야 할 주제다.

그런데 신계성은 김굉필의 공부법을 비판한 바 있다. “한훤당이 고심

45) 앞의 <행장>, 231쪽. “朝廷屢以德行徵之, 托疾不起, 遂終身以白衣. 嗚呼! 如先生者, 篤信君子, 亦可謂高尚其志, 不事王侯者也.”

46) 進步廝殺에 대해서는 김낙진, 「敬堂 張興孝를 통해 본 퇴계학파의 심학」, 『한국인물사연구』21, 한국인물사연구회, 2014, 368~372쪽을 참고.

하면서 학문에 힘써 가야산 蘇利庵에 올라가 밤을 새면서 자지 않았으니 참선하는 것과 모습이 같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쓰면 도리어 도학에 병통이 있게 된다.” 이 말의 출처는 『德川師友錄』이고, 南溪 朴世采(1631~1695)의 『東儒師友錄』도 전재되었다.⁴⁷⁾ 그 자신이 수행한惺惺의 방법도 김굉필의 방법과 유사하였기에 이런 비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이것 역시 역사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해야 할 것 같다.

8년간 長坐不臥하고 때로 不眠하였다는 性徹(1912~1993)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禪家 수행 방법의 차용이다. 마음을 명징하게 하려는 목적과 달리 급박하게 효과를 기대함으로써 마음을 소란하게 할 뿐 아니라, 신체의 기능 저하를 가져와 도학의 목표인 中庸의 인격을 기르는 데 방해가 된다고 유학자들은 평가한다. 후유들은 이 과격한 방법을 억지로 마음을 잡아 보존하는(操存) 것, 마음을 각박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반성한다.⁴⁸⁾ 도학에 병통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된다.

조선유학사에서 이 병통을 이해하고 심학에 깊이를 더한 이가 이황이다. 젊은 시절 밤낮을 쉬지도 자지도 않고 공부하다가 고질병에 걸렸던 그는 후일 자야 할 때는 자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되, 시시각각 觀省하여 마음이 放逸해지지 않도록 할 뿐, 고행과 같은 공부를 해서는 안 됨을 깨달았다. 그는 착수처로 整齊嚴肅을 권한다. “초학을 위한 계획은 정제 엄숙에서 공부하는 것 만한 것이 없으니, 未發에서는 억지로 찾지 않고 已發에서는 의도적으로 안배하지 않으면서, 다만 법도에 맞게 처신하고 짧은 시간 동안의 隱微한 사이에도 이 마음이 조금도 방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오래 한 뒤에 저절로 惺惺해지고 저절로 마음에 一物도 용납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잊거나 조장하는 병통이 조금도 없다.”⁴⁹⁾

47) 작자 미상, <遺事>, 『실기』상, 234쪽. “先生嘗言寒暄堂苦心力學, 上伽倻蘇利庵, 終夜不寐, 參禪一樣, 於道學却有病痛.”

48) 農巖 金昌協은 조식의 방법이 그렇다고 보았다. 金昌協, <雜識>, 『農巖集』II, 한국문집총간, 1998, 349하b~350상b. “然南冥實不知學, 只是處士之有氣節者耳. 其言論風采, 雖有聳動人處, 弊病亦不少, 游其門者, 大抵皆尙氣好異, …南冥持敬之力, 儘似過人. 然亦是把捉得定, 非從容涵養而得之者也.”

程子の 정제엄숙을 오래 하다보면 謝良佐의 상성성법과 尹暲의 不容一物의 효과가 저절로 얻어진다는 것이다.

이제 맹자의 “반드시 일 삼으면서도 기대하지 않고, 마음에서 잊지 않으면서도 조장하지 않는다”(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는 교훈에 따른 점진적이고도 온건한 방법이 선호된다. 정이의 ‘著意해서도 안 되고 착의하지 않아도 안 된다’는 교훈과 주자의 ‘억지로 찾지도 의도적으로 안배하지도 않는다’는 교훈이 문자가 아닌 체험으로 이해되고 그에 적합한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이황의 문하에서도 최초의 하수처가 성성법인지, 정제엄숙인지에 대한 裴彦 李國弼(1540~?)과 良齋 李德弘(1541~1596)의 토론이 있었지만 스승은 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⁵⁰⁾ 이런 방향 전환은 퇴계학단의 학자들은 물론 율곡계열의 학자들에게도 동의되었다.⁵¹⁾

이황은 사육의 원천인 신체 즉 기를 압박하기 위해 기상을 강화하기 보다는 일용의 언행을 온건하게 통제하면서 원만한 인격의 형성을 꾀한다. 이에 비해 신계성과 조식은 기운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 같다. 신계성과 조식이 활동하던 시대는 아직 주자학의 심법에 대한 공론이 형성되지 못한 채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다가, 점차 특정 심법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과도기였다. 김굉필에

49) 李德弘, <溪山記善錄>, 『良齋集』, 한국문집총간, 1990, 89하a. “先生嘗言吾少時發憤爲學, 終日不輟終夜不寐, 遂得沉痾之疾, 迄未免病廢之人. 學者須量其氣力, 當寢而寢, 當起而起, 隨時隨處, 每每觀省, 不使此心放逸而已. 何必苦苦如此, 以致疾病乎?” 같은 곳, 82상a~b. “爲初學計, 莫若就整齊嚴肅上做工夫. 不容尋覓, 不容安排, 只是立脚於規矩繩墨之上, 戒愼恐懼於須臾隱微之際, 不使此心少有放逸, 則久而後自然惺惺, 自然不容一物, 無少忘助之病矣. 伊川嘗曰, 非著意非不著意. 朱子答張敬夫書曰, 以敬爲主, 則內外肅然, 不忘不助而心自存, 不以敬爲主而欲存心, 則不免將一箇心把捉箇心.”

50) 이국필과 이덕홍의 언쟁은 앞의 李德弘, <溪山記善錄>, 83상b를 참고.

51) 일례로 朴世采는 젊은 시절 主一無適을 애호했으나, 후일 생각을 바꾸었다. 1667년 <論敬提要>를 편집하고는 다음의 후기를 남겼다. “余嘗讀大學或問, 得所論持敬之旨, 以主一無適爲主, 蓋亦以此用力, 而至今猶若存若亡也. …間閱爲學之方, 復得朱夫子所遺何叔京等書, 而竊有呖乎其言之. 始知養而所引整齊嚴肅一段, 蓋亦出於主一, 而爲尤有力於下手親切之地. 又聞退溪先生推明此義, 以爲初學之準的, 徐以考之, 益信其說之可徵也.”(『南溪集』Ⅳ, 한국문집총간, 1997, 439상b.)

대한 신계성의 비평은 비난이라기보다는 시행착오 과정에 나타난 자기 반성 및 수정의 모습이라고 추측된다.

신계성이 속했던 학단이 자취를 감춘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논자도 있다. 그러나 박세채가 “중종에서 명종에 이르는 시기에 많은 학자들이 출현하여 정주학을 표준으로 삼아 공부했지만, 道와 器, 인심의 위태로움과 도심의 미약함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⁵²⁾고 한 것이 사실에 가깝다. 이런 때에는 栗谷 李珥의 말대로 “先正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를 논의함에서는 明辯하지 않을 수 없다.”⁵³⁾ 학술은 앞 시대의 오류들을 비판하고 수정해 가는 과정을 통해 정밀해진다. 선배들이 범한 오류를 딛고 일어난 후배들의 학식과 그들에게 배우지 않을 수 없었던 학생들의 형편을 고려하면, 선배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순리이다. 선배들이 못나서가 아니므로 아쉬워할 것이 없다.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1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52) 朴世采, <河西先生金公行狀>, 『南溪集』IV, 110상a~b. “蓋海東, 自殷師化邈, 聖學不明. 至我中明之際, 治教隆盛, 羣賢輩出, 莫不以洛閩爲準則. 然於道器危微之說, 尙多聽瑩者.”

53) 李珥, <擊蒙編跋>, 『栗谷全書』, 한국문집총간, 1989, 274하a. “松堂之言論風旨, 世不多傳, 曾聞退溪評松堂之學, 帶得禪味云, 無乃指此等處耶? 或問. 朱子曰, 若不能識得, 涵養箇甚. 松堂之旨, 無乃如此耶? 余曰不然. 識得云者, 只是理會操存之要, 而識其下手處云爾, 非若松堂所謂有得者也. 一字之義不明, 而誤人知見者多矣. 先正固當尊敬, 而至於論道, 則不可以不明辨也.”

참고문헌

- 申季誠, 『松溪先生實紀』(『國譯註解 松溪先生實紀』 수록본).
- 申季誠, 김광순·김시황·금종우·문경현·이홍진 옮김, 『國譯註解 松溪先生實紀』,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0.
- 金宏弼, 『국역 景賢錄』, 한훤당선생기념사업회, 2004.
-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998.
- 朴世采, 『南溪集』, 한국문집총간, 1997.
- 朴 英, 『松堂集』, 한국문집총간, 1988.
- 孫起陽, 『磬漢先生文集』, 경상대학교 문헌각 DB.
- 安 玘, 『五休堂先生文集』, 국립중앙도서관 DB.
- 李 珥, 『栗谷全書』, 한국문집총간, 1989.
- 任聖周, 『鹿門集』, 한국문집총간, 1999.
- 鄭介清, 『愚得錄』, 한국문집총간, 1989.
- 鄭 述, 『心經發揮』, 국립중앙도서관 DB.
- 程 頤, 『易傳』.
- 鄭仁弘, 『來庵集』, 한국문집총간, 1989.
- 鄭 蘊, 『桐溪集』, 한국문집총간, 1991.
- 曹 植, 『南冥集』, 한국문집총간, 1989.
- 朱熹·呂大臨, 『近思錄』.
- 朱 熹, 『大學章句』·『中庸章句』·『周易大全』.
- 黃俊良, 『錦溪集』, 한국문집총간, 1989.
- 김낙진, 「敬堂 張興孝를 통해 본 퇴계학파의 심학」, 『한국인물사연구』21, 한국인물사연구회, 2014.
- 김성우, 「15세기 중·후반~16세기 道學運動의 전개와 松堂學派의 활동」, 『역사학보』202, 역사학회, 2009.
- 김윤수, 「송계실기 해제」, 『남명학연구』7,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7.
- 박병련, 「사라진 계보의 복원을 통해 본 지방사림세력의 변화-인조반정 후 밀양 지역 佔畢齋-松溪-來庵 학맥의 浮沈을 중심으로」, 『한국계보연구』9, 한국계보연구회, 2019.

- 신상필, 「松溪 申季誠 가계의 밀양 정착과 후대의 추승 과정에 대한 일고찰」, 『남명학연구』61,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9.
- 오이환, 「남명 조식의 사상과 남명학파의 좌절」, 『남명학의 새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 이세동, 「玉溪 潘佑亨의 <寒氷戒> 고찰」, 『영남학』25,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4.
- 장윤수, 「송당 박영의 도학적 학풍과 성리학적 사유」, 『한국학논집』66,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7a.
- , 『송당 박영, 문무겸비의 도학자』, 예문서원, 2017b.
- 정출현, 「송계 신계성의 시대정신과 그 학술사적 위상」, 밀양문화원, 제13회 밀양향현 추모학술대회, 2017.
- 차장섭, 「신당 정봉의 생애와 정치사상적 역할」, 『국학연구』23, 한국국학진흥원, 2013.
- 황지원, 「송당학파의 도학정신에 내재된 사상적 특성」, 『동아인문학』45, 동아인문학회, 2018.

Shin Gyesung's transmission of Taoxue and Influence on Choshik

Kim, Nak-jin

There were various opinions on how the study of Choshik was formed.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he has achieved scholarship by himself without the help of teacher or fellow, however I tried to examine the role of his friend, Shin Gyesung. He inherited the discipline from Kim Going-pil to Park Young, in addition, he tried to cultivate his own personality for 40 years. There is very little data on him, so we have to estimate his thoughts while considering his academic transfer relationship. He regarded it as a lifelong task to build the order of human morality by inheriting the academic tradition that emphasized *Sohak*. The evidence appears in his biography and traces can be found in Park Young's teachings. He connected humanity practice and mental discipline. That evidence is his watchwords. His method of cultivating mind and Spirit was the same as that of Choshik, therefore we can guess that Choshik had the influence of Park Young School. However, his mental cultivation method was a phenomenon that appeared in the transition period, so it was something that had to be overcome as Joseon Confucianism was deepened.

keywords :

Shin Gyesung, Choshik, Park Young, method of cultivating mind, Taoxue